Ⅴ. 고찰

#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구역 서쪽 구릉 사면부에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22∼24m 내 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10동으로 대부분이 주거지 중앙부에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에 해당된다. 조사된 주거지는 모두 (적)황갈색 점토층 (고토양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하단부(남쪽)로는 지형의 삭평 및 교란, 후대 유 구 조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조사된 주거지를 통해 파악된 속성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청동기시대 주거지 속성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구명 | 평면 형태 | 규모(㎝) | | | 면적 (㎡) | 내부시설 | | | | 출토유물 | 주거지 형식 |
| 잔존 길이 | 잔존 너비 | 깊이 | 타원형 구덩이 | 주주혈 (四住) | 주혈 | 벽구 |
| 1호 | 원형 | 524 | 478 | 100 | 20.2 | ○ | - | - | ○ (2기) | 일단경식 석촉, 석착, 지석, 연석, 미완성 석기, 옥 | AⅠ |
| 2호 | (원형) | 508 | 293 | 10 | - | ○ | - | - | ○ | 일단경식 석촉, 불명철기 | AⅥ |
| 3호 | (원형) | 790 | 588 | 88 | - | ○ | ○ | ○ | ○ | 석제 방추차, 지석 | AⅡ |
| 4호 | 원형 | 540 | 471 | 69 | 23.3 | ○ | ○ | ○ | ○ (2기) | 이단경식 석촉, 미완 성 석기, 무문토기편 | AⅡ |
| 5호 | 원형 | 406 | 347 | 45 | 11.1 | ○ | - | ○ | ○ | 무문토기편, 석촉 | AⅠ |
| 6호 | 원형 | 480 | 476 | 30 | 20.4 | ○ | ○ | - | ○ | 무문토기편, 일단경 식 석촉, 미완성 석촉 및 석기 | AⅡ |
| 7호 | (원형) | 451 | 302 | 16 | - | ○ | ○ | - | ○ (2기) | - | AⅡ |
| 8호 | (원형) | 276 | 155 | 38 | - | ○ | - | - | ○ | - | - |
| 9호 | (원형) | 337 | 211 | 10 | - | ○ | - | ○ | ○ | - | AⅠ |
| 10호 | (원형) | 604 | 226 | 16 | - | - | - | ○ | ○ | - | - |

( ) : 추정

434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 입지 및 주변유적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는 지형에 따라 평지형, 산지형, 구릉형으로 구분된다.55) 이러한 지형에 따른 구분은 생업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충적대지에 위치하는 평지형은 주로 밭 경작, 산지형은 화전 경작, 구릉형은 수전 경작을 중심으로 한 농경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6)

본 유적이 속한 함평군은 영산강의 하류에 위치하며,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는 크게 평지형과 구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지형은 곡류하는 영산강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대지 에 위치한 담양 태목리유적57)이 대표적이며, 구릉형은 구릉 사면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평야가 형 성된 광주 송암동유적58)·함평 고양촌유적59)·함평 신흥동유적60)·함평 송산유적61)·무안 인평유 적62)·나주 구기촌 덕곡유적6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 중 명암유적과 인접한 유적으로는 신흥 동유적과 송산유적 등이 있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입지는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이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져 위치하며, 명암마을 북쪽에 위치한 해발 30m 내외의 구릉 사면 하단부에 해당된다. 이 일대는 함평천을 중심 으로 약 2㎞ 정도의 넓은 평야가 펼쳐지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지막한 구릉이 남-북 방향으로 형성 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갖춘 본 유적은 하천을 통한 용수의 확보가 용이하여 경작이나 어로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64)받을 수 있으며,‘함평천’과‘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발달이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지막한 구릉 사면 하단부에 주거지를 조성함으로써 수렵과 채집 을 통한 식량 확보 및 땔감을 비롯한 목재의 확보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은 여러 좋은 자연지리적 제반 사항과 더불어 일조량 및 풍향 등 기후적 여건도 함께 고려65)하여 선상으로 배치66)된 계획적 취락이라 할 수 있다.

1. 안재호, 2000,「남한 농경사회의 성립」,『한국고고학보』43.
2. 이형원, 2009,『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담양 태목리유적Ⅰ』.

, 2010,『담양 태목리유적Ⅱ』.

1. 목포대학교박물관, 1977,『광주 송암동 주거지·충효동 지석묘』.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함평 고양촌유적』.
3.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0,『함평 신흥동유적Ⅰ』.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함평 신흥동유적Ⅱ』.

, 2014,『함평 신흥동유적Ⅲ』.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함평 송산유적』.
2.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무안 인평 고분군』.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6,『나주 구기촌·덕곡유적』.
4. 윤호필, 2005,「충적지형에 입지한 유적 조사법 및 분석방법」,『발굴사례·연구논문집』제 2집, 한국문화재조사 연구전문기관협회.
5. 홍주희, 2004,『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형과 주거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6. 본 유적 1구역 유구배치도를 살펴보면, 서쪽부 구릉 하단에서 주거지가 일렬 선상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문화재연구원 435



조사대상지역

함평천

고막천

문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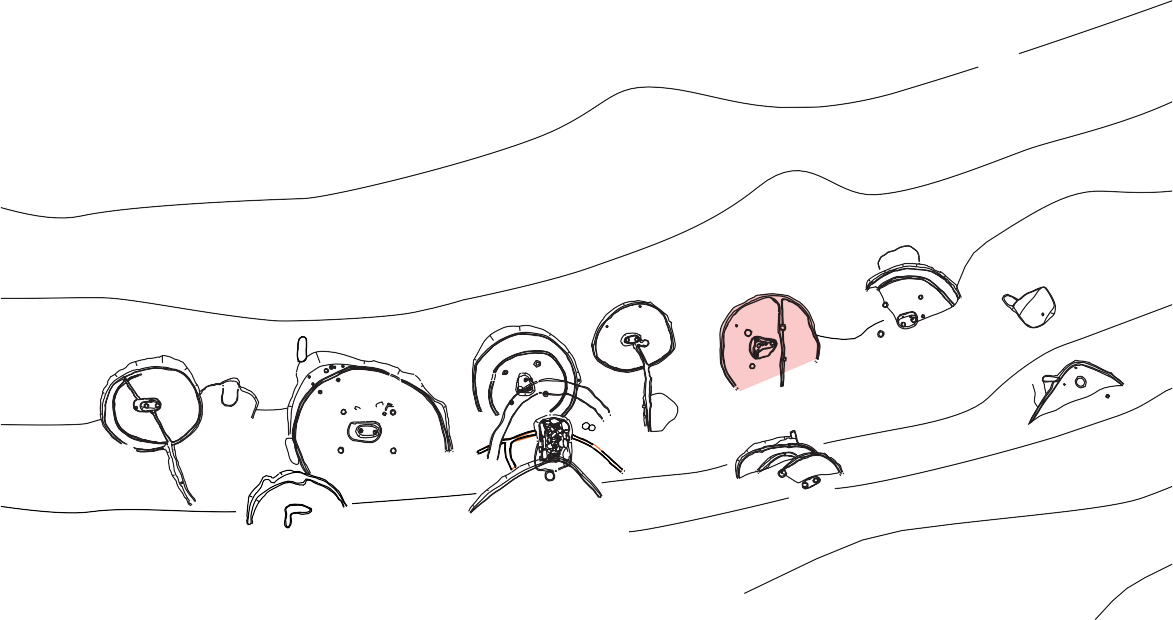
영산강

0

1

2km

조사대상지역 수계도(S=1:100,000)



0 1 2m

5호

6호

4호

7호

1호

3호

8호

2호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배치도

436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 2) 구조적 특징

1. 평면형태 및 규모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규모는 시간적 속성 및 공간의 속성 등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면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는 방형보다 원형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는 원형과 방형이 공존하는데, 시간적 인 흐름에 따라 원형↑방형↓ ⇒ 원형↓방형↑ 순으로 이행되면서 철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로 변 화하는 양상이 일반적인 흐름이다.67)

이러한 시간적인 속성을 가진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10동 중 6동이 지형의 삭평과 후대 유구의 조성, 교란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주거지 경사지 윗부분에 위치한 상단 부만 잔존하고, 아랫부분의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이에 각 주거지의 정확한 평면형태 및 규모를 파 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잔존상태가 불량한 주거지 대부분이 평면형태에서 회절 각이 없고, 내부시설인 벽구가 대부분 호를 이루며 조성되었기에 주거지 평면형태 역시 대부분 원형으로 조성 된 것이 파악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영산강유역 및 호남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도 중기 이 후로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면서 증가한다. 중기의 송국리형 주거지 역시 소형화·규격화 되면 서 호남지역 전체로 확산된다.68) 이러한 현상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로 볼 수 있는데, 공동거주방식 에서 단독거주방식,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거주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69) 거주패턴의 변화 는 수전 농경을 통해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잉여생산물의 저장 및 분배와 관련 되어 주거지 수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속성을 가진 주거지의 규모는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중 면적을 산출할 수

1. 유향미, 2006,「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의 양상」,『연구논문집』6, 호남문화재연구원.
2. 양영주, 2009,『호남 중북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변화양상』,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자는 청동 기시대 시기구분에 있어 조기-전기-후기로 구분되는 신 3분기 구분법(안재호 2006)으로 송국리형 주거지를 후 기에 편입시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기원전 5세기에 등장하는 점토대토기와 초기철기시대에 등장 하는 세형동검이 기원전 3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세형동검이 등장하는 시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청동기 시대 후기로 구분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기구분에 있어 조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되는 4분 기법(안재호 2000)에 송국리형 주거지를 중기에 편입시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에 관한 시기구분 가운데 송국리문화의 중심시기를 비정함에 있어 후속하는 점토대토 기 단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크게는 송국리문화가 점토대토기문화로 계 승되거나 발전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송국리문화를 청동기시대의 종말로 바라보아 후기로 판단(유병록 2019)하기 도 하며, 반대로 점토대토기 중 원형점토대토기의 단독기 혹은 원형점토대토기-세형동검-철기 순으로의 한반도 내 유입과정이 인정(이형원 2011)되면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비정하는 연구 경향도 있다. 본고는 한국 청동기학회 주관으로 최초의 청동기시대 연구사를 집대성한 자료(안재호, 201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안재호, 2000,「남한 농경사회의 성립」,『한국고고학보』43.

안재호, 2006,『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재호, 2016,「총설」,『청동기시대의 고고학2-編年-』,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이형원, 2011,「중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시간성과 공간성」,『호서고고학』24.

유병록, 2019,『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심현태, 2014,『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북한강유형 주거지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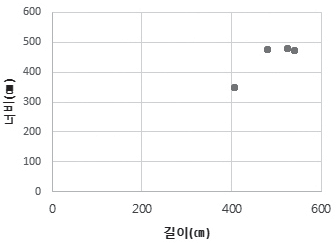
동국문화재연구원 437

있는 주거지 4동에 한해 분류하면 소형 1기, 중형 3기로 구분된다.70) 소형과 중형은 면적 20㎡를 기 준으로 미만은 소형, 초과는 중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8>과 <면적에 따른 규모 분포도>를 살펴보면, 소형의 경우 면적이 11.1㎡, 중형의 경우 20.2∼ 23.3㎡내에 속한다.

한편, 모든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원형이기에 규 모와 평면형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만, 후술할 내부시설에서 언급하겠지만 소

면적에 따른 규모 분포도



형의 주거지와 중형의 주거지의 차이점이 주주혈의 유무에 따라 규모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3호 주거지의 경우 하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면적을 산출할 수 없지만 잔존양상으로 볼 때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주거지로 파악되었다.

1.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 이에 기존 연구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시설인 타원형수혈 내 주혈의 유무 및 위치, 주주 혈을 통한 형식 분류71)를 시도하였고 분류된 형식 분류를 통해 변화양상 및 기능에 대한 결과를 도출

<표 9> 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 형식 분류(유향미, 2006 인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 A | 담양 성산리 1호 | 함평 고양촌 나 1호 | 군산 도암리 | 나주 영천 12호 | 영암 장천리 5호 | 담양 태목리 49-2호 |
| B | 영암 금계리 6호 |  | 광주 성덕 1호 |  | 광주 성덕 8호 | 영암 금계리 8호 |

1. 안재호, 2006, 앞의 논문. 유향미, 2006, 앞의 논문.

안재호는 규모를 면적으로 소형(20㎡)·중형(20∼25㎡)·대형(30㎡)으로 구분하였다. 유향미는 규모에 대해 정 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면적 20㎡를 기준으로 주거 규모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분류안을 참고하 였다.

1. 김규정, 2006,「호서·호남지방의 송국리형주거지」,『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유향미, 2006, 앞의 논문.

438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식 분류 중에서도 영산강유역에 위치한 송국 리형 주거지에 한해 형식 분류를 시도한 연구를 토대로 명암유적 주거지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상기된 <표 9>의 형식 분류를 살펴보면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내부시설인 타원형수혈 내 주혈의 유무, 주혈의 배치에 따라 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 형식을 12가지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 성 과를 바탕으로 명암유적의 주거지를 대입하면 주거지 10동은 12가지 형식 중 3개의 형식에 해당 된다. AⅠ주거지 3기(1호·5호·9호), AⅡ주거지 4기(3호·4호·6호·7호), AⅥ주거지 1기(2호) 로 분류되며, 나머지 2기는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분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분류된 주거지 중 가장 단순한 속성을 가진 AⅠ주거지의 경우 영산강유역에서 일반적인 주거지 형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AⅡ주거지의 경우 4주(四住)식의 주혈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규모 가 큰 편이므로 특수한 목적의 주거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AⅥ주거지의 경우에는 타원 형수혈 내부 양단에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특수한 목적의 주거지보다는 타원형구덩이 의 노지화(爐址化)인 변화 단계상의 형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0> 명암유적 내부시설(타원형수혈과 주혈) 배치 양상 분류(축적부동)

|  |  |  |
| --- | --- | --- |
|  |  |  |
| AⅠ(내부양단주혈)  - 1호 주거지 | AⅡ(내부양단주혈+외부 四柱穴)  - 4호 주거지 | AⅥ(주혈 없음)  - 2호 주거지 |

앞서 형식 분류에서 타원형수혈과 주혈(四柱穴) 등 내부시설이 가장 큰 속성재료로 이용되었다. 이 중 타원형수혈의 기능은 정착 농경생활과 연관되어 농경 도구 제작을 위한 석기 제작과 보수를 위한 작업시설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간적인 흐름과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 집수구, 노지, 저장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72)

이러한 다양한 기능 중‘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타원형수혈은 주변에서 지석 및 미완 성 석기, 박편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석기 제작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호·5호·9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수혈과 구가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집수구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수혈 내부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노지 화(爐址化) 단계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또한, 1호·3호·4호·5호·6호·7호 주거지에서 2단으로 조성된 타원형수혈이 확인되며, 1 호·4호·6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수혈 내 주혈이 3기 또는 4기가 주거지 주축방향과 평행하거나

1. 김규정, 2002,「송국리형 주거지 내 타원형구덩이 기능 검토」,『연구논문집』2, 호남문화재연구원.

동국문화재연구원 439

직교하게 확인되는 특이점이 관찰된다. 이는 타원형수혈의 보수 및 확장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타원형수혈의 기능이 여러 용도로 변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四住)의 배치는 대형화된 주거지의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 배치된 것73)으로 특수한 목 적을 가진 주거지로 해석하기도 한다.74) 본 유적에서는 1호·4호·5호·6호 주거지에서 주혈(四住)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규모면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에 기존 연구의 특수한 목적의 주거지로 해석하는 것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는 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주거지의 규모가 주혈이 확인되는 주거지와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의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가구 구조상의 변화일 뿐이지 특수한 목적의 주거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거지의 규모와 주혈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혈은 3호·5호·9호·10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주혈들이 벽면에 붙어 있거나, 벽구 내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벽주혈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3호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 북 서쪽 능선의 상단부에서 밀집하여 8기가 확인되는 특징이 있는데, 주거지의 벽면 역시 주혈이 밀집 된 곳에 살짝 돌출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출입시설 또는 침상시설과 관련된 주혈일 것으로 추정된다.

벽구는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벽구는 주거지 평면형태에 맞추어 벽면 을 따라 1기가 조성되는데, 1호·4호·7호 주거지에서는 벽면을 따라 조성된 벽구 이외에도 타원 형수혈과 주혈 외곽으로 1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타원형수혈이 2단으로 시설된 주 거지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따라서 타원형수혈에서도 전술하였듯이 토층양상에서는 확인되지 않 지만 기존 주거지의 벽구로 이용되다가 주거지 보수와 확장의 영향으로 벽면의 벽구가 새롭게 시설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벽구 이외에도 타원형수혈로 연결되는 구와 주거지 외부로 빠지는 배수구 등이 확인되는 특 이점도 관찰된다. 먼저, 벽구에서 타원형수혈로 연결되는 구는‘T’자형 구조의 6호 주거지,‘Y’자 형으로 추정되는 1호·9호 주거지에 있다. 외부로 빠지는 배수구는 1호·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는 모든 주거지에서 벽구를 비롯한 내·외부 구 등이 시설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조성 층이 고토양층이기에 배수에 있어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 내부에 습기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 등 물을 배수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출토유물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토기류와 석기류, 옥 등 총 26점이 출토되었다.75) 토기류는 구연부편과 저

1. , 1999,「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호남고고학보』9집, 호남고고학회.
2. 유향미, 2006, 앞의 논문.
3.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은 총 27점이나, 2호 주거지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확인된 불명철기 1점은 출토위치

440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부편으로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는 지석, 연석, 석착, 석촉, 방추차, 미완성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명암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구명 | 토기류 | | 석기류 | | | | | | | | 옥 | 합계 |
| 구연부 | 저부 | 지석 | 연석 | 석착 | 석촉 | | | 방추차 | 미완성석기 |
| 일단  경식 | 이단  경식 | 미완성 |
| 1호 |  |  | 4 | 1 | 1 | 1 |  |  |  | 3 | 1 | 11 |
| 2호 |  |  |  |  |  | 1 |  |  |  |  |  | 1 |
| 3호 |  |  | 1 |  |  |  |  |  | 1 |  |  | 2 |
| 4호 |  | 2 |  |  |  |  | 1 |  |  | 1 |  | 4 |
| 5호 | 1 |  |  |  |  |  |  | 1 |  |  |  | 2 |
| 6호 |  | 3 |  |  |  | 1 |  | 1 |  | 1 |  | 6 |
| 합계 | 1 | 5 | 5 | 1 | 1 | 3 | 1 | 2 | 1 | 5 | 1 | 26 |

토기류는 구연부 1점, 저부 5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 으며, 석기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량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편으로 출토되어 기종 및 기형을 확인할 수 없어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송국리형 주거지의 표지적 유물인 외반구연의 토기 구연부편 1점이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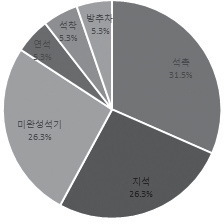
석기류는 총 19점이 출토되었으며, 출토비율에 따라 정 리하면 석촉(31.5%)·지석(26.3%)·미완성 석기(26.3%)

·연석(5.3%)·석착(5.3%)·방추차(5.3%) 순으로 출토되 었다.

석기류 중 출토비율이 가장 높은 석촉은 수렵 및 무기 구로 본 유적 외에도 주거지 내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 중 하나로 형식 분류 및 편년에 있어 중요한 유물 이다. 석촉의 형식 분류는 대부분 경부의 형태에 따라 분 류되고 있는데, 경부형태는 재가공에 의한 변이가 적고 착장 방법 및 촉신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이다.76) 따라서 본 장에서도 석촉 경부의 형태에 따라 형식 분류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5호 주거지 출토 외반 구연 토기



석기류 종류별 출토비율

가 상부로 주거지와 관련이 없는 유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 김혜진, 2007,『강원 영서지방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문화재연구원 441

<표 12> 명암유적 석촉 형식 분류(축적부동)

|  |  |  |
| --- | --- | --- |
|  |  |  |
| Ⅰ(4호 주거지) | Ⅱa(1호 주거지) | Ⅱb(6호 주거지) |

상기된 <표 5>와 같이 경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이단경식(Ⅰ)과 일단경식(Ⅱ)으로 구분되며, 일 단경식은 세부적으로 경부의 단면 형태가 편평한 경우(a)와 둥글고 말단이 뾰족한 경우(b)로 구분 된다. 석촉의 변화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단경식에서 일단경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Ⅰ→Ⅱ형식으로 변화77)하고 Ⅱ형식은 세부적으로 Ⅱa → Ⅱb 형식 순으로 변화78)한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는 석기류 중 석촉을 통해서만 변화 양상이 파악되며, 이외에는 유물의 수량 이 적고 형식을 분류할 유물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석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인 지석과 미완성 석기가 그나마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과 목공구로 사용된 석착, 식료 가공용 갈판인 연 석, 방직과 관련된 미완성 방추차 등이 소량으로 출토되었다.

토기류나 석기류 외에도 옥제품 1점이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 4) 편년

명암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10동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주거지는 구릉 사면 하단부 에 일렬 선상으로 배치되었으며, 대부분 평면형태 원형에 타원형구덩이가 배치된 소위 송국리형 주 거지에 해당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내부시설의 배치 및 종류에 따라 영산강유역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식 분류 를 시도한 유향미의 분류 안을 따라 그 형식에 따른 주거지의 중복관계,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를 중심으로 편년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지의 중복관계는 9호와 10호 주거지, 2호와 3호 주거지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었다. 그 러나 10호 주거지가 후행된 9호 주거지(AⅠ형식) 조성으로 인해 내부시설 등 잔존양상이 매우 불량 하여 형식 분류를 할 수 없었으며, 미약하게 확인되는 2호와 3호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대해서만 파 악하였다.

1. 손준호, 2007,「마제석촉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한국고고학보』62, 한국고고학회.
2. 이석범, 2004,「영남지역 마제석촉의 형식분류」,『영남문화재연구』17, 영남문화재연구원.

442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표 13> 주거지 중복관계 현황

|  |  |  |  |
| --- | --- | --- | --- |
| 형식 | AⅠ형식 | AⅡ형식 | AⅥ형식 |
| 중복관계 |  | 3호 주거지 → 2호 주거지 | |

위와 같이 AⅡ형식인 3호 주거지와 AⅥ형식인 2호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AⅥ형식인 2 호 주거지가 AⅡ형식인 3호 주거지를 굴착하여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AⅡ → AⅥ 형식 순의 시간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확하지는 않지만 AⅠ형식인 9호 주거지가 10호 주거지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10호 주 거지의 경우 잔존양상이 불량하지만, 규모면에서 AⅡ형식인 주혈(四住)이 배치되어 있는 주거지와 비슷한 크기를 갖추고 있기에 10호 주거지는 AⅡ형식의 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의하면 AⅠ과 AⅥ형식의 주거지와의 중복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AⅡ → AⅠ·AⅥ 형식의 시간 적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수량이 많지 않지만, 토기류에서 송국리형의 표지적 유물인 외반구연의 토기 구연부 편이 출토되었고, 축약된 굽을 형성하고 사선으로 올라가는 토기 저부편들도 일부 출토되었다. 또 한, 시간적 속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석촉에서 AⅡ형식인 4호 주거지에서 이단경식 석촉이 출 토되었고, AⅠ(1호 주거지)·AⅡ(6호 주거지)·AⅥ(2호 주거지)형식 모두에서 일단경식 석촉이 각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따라서 유물에 있어서도 미약하지만 중복관계와 마찬가지로 AⅡ→ AⅠ·A Ⅵ 형식 순의 시간성을 반영해준다.

방사성탄소연대는 목탄 시료가 소량이라도 잔존하는 AⅠ형식의 5호 주거지와 AⅡ형식의 7호 주 거지 2동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79) 다음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이다.

<표 14> 명암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  |  |  |  |
| --- | --- | --- | --- |
| 연번 | 유구명 | 절대연대(BP) | 보정연대(BC/AD) |
| 1 | 5호 주거지 | 2970±70 | B.C 1410∼1000 |
| 2 | 7호 주거지 | 2540±30 | B.C 650∼540 |

측정 결과, AⅠ형식의 5호 주거지는 기원전 1410∼1000년, AⅡ형식의 7호 주거지는 기원전 650∼540년이 측정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해서는 AⅠ형식의 주거지가 AⅡ형식의 주거지 보다 선행되어 조성된 측정값이 도출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송국리형 주거지는 청동 기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사성탄소 연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15∼10세기의 측정값이 나오고 주거지별 연대 폭이 커 전적으 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유적의 편년은 방사성탄소연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7호 주거지에서 기존 송 국리형 주거지의 시기에 속하는 기원전 7∼6세기의 연대 측정값이 도출되었고, 주변 함평지역의 고 양촌유적과 신풍유적, 신흥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가 기원전 7∼5

1.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부록 6 참조)

동국문화재연구원 443

세기 사이의 측정값이 도출되었기에 본 유적 역시 주변 유적과 동일시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입지적으로 함평천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구릉 사면 하단부에 일렬 선상으로 배치되어 자연·지리적 여건과 기후 적 여건을 동시에 갖춘 계획적 취락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표지적 유형인 타원형구덩이를 갖춘 송국리형 주거지로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다. 규모는 대부분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산출이 어렵지만, 그나마 잔존상태가 양호한 주 거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형 1기, 중형 3기로 중형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내 부시설의 특징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류안을 따라 구분하면, 12가 지 형식 중 AⅠ(타원형수혈 양단 주혈)·AⅡ(타원형구덩이 양단 주혈+4주(四住)식의 주혈)·AⅥ (타원형수혈) 형식 3가지 종류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 주거지의 특징은 벽구를 비롯한 내·외부 구가 모든 주거지에 시설된 것으로 이는 유구의 조성층이 고토양층이기에 유입되는 물의 배수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의 표지적 유물인 외반구연 토기 구연부편을 비롯한 수렵 및 무기구인 석촉, 석기 제작과 관련된 지석과 미완성 석기, 농경과 목공구로 사용된 석착, 식료 가 공용 갈판인 연석, 방직과 관련된 미완성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편년에 앞서 분류한 주거지 형식과 형식에 따른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중복관계 등을 검토 해 보았다. 검토 결과, 미약하게나마 AⅡ→ AⅠ·AⅥ 형식 순의 시간성이 확인되었다. 명암유적의 편년은 7호 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에서 기원전 7∼6세기의 연대 측정값이 도출되었으며, 주변 함 평지역의 고양촌유적과 신풍유적, 신흥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비슷한 특징 및 양 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가 기원전 7∼5세기 사이의 측정값 이 도출되었기에 본 유적 역시 주변 유적과 동일시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심현태)

#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한국고고학사에서 전라남도 함평지역을 대표하는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유적으로는‘초포리유 적(草浦里遺蹟)80)’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유적은 1987년 주민들이 마을 안길의 진입로 공사도중 발견·신고된 유적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81) 조사정황을 종합해보면 積石木棺墓의 구조로 추정되며, 유물은 발견신고품이 16점, 수습발굴조사에서 10점 등 모두 26점이 확인 되었다82)고 한다. 출토유물을 통해볼 때, 목관묘가 설치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 전반(이희준

1.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산 383-4번지의 얕은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380m 정 도 떨어져 소하천이, 서쪽으로 약 18.5㎞ 정도 떨어져‘함평만’이 위치하고 있다.
2. 국립광주박물관, 1988,『함평 초포리 유적』, 국립광주박물관학술조사보고 제14책.
3. 출토된 유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武器類(세형동검 4, 동과 3, 동모 2, 중국식동검 1), 工具類(유견동부 1, 동착 2, 동사 1), 儀器類(다뉴세문경 3, 간두령 2, 조합식 쌍두령 1, 쌍두령 1, 병부동령 1), 裝身具(천하석제 식옥 2), 기타(숫돌 2) 등이다.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韓國考古學事典』, pp.1176-1177.

444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2011)~기원전 2세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로 추정된다. 충청 및 전라도 지방에서 이 유적과 동 시기로 알려진 곳으로는‘부여 구봉리유적’,‘부여 합송리유적’,‘당진 소소리유적’,‘화순 대곡리 유적’,‘논산 원북리유적’,‘장수 남양리유적’,‘완주 갈동유적’등이 있다.83) 한편 우리 동국문화재 연구원이 발굴조사한‘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초포리유적’까지의 직선거리는 북동쪽으로 약 14㎞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연구원은‘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관 묘 1기를 조사하였다. 원래부터 1기만 單獨으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목관묘의 내부 에서는 이희준(2011) 편년의 기원전 4세기대~기원전 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원형점토대옹과 흑 도장경호 각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들은 초기목관묘 단계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들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영·호남지방에서 조사된 다수의 목관묘 유적들 중, 초기목관묘의 경우 群集化84)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경우도 초기목관 묘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記述하고자 한다.

## 유구

1. 입지 및 장축방향

목관묘가 조사된‘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북동쪽은 얕은 구릉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에는 넓은 평야가 위치하고 있다. 조사현장에서 직선거리 약 700m 정 도 떨어진 평야의 동쪽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함평천’이, 10㎞ 정도 거리에‘함평만’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직선거리 약 550m 정도 떨어져‘학교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 하천은 남쪽에 위치하는 학교면사무소의 남서쪽 약 800m 지점에서 남류하는‘함평천’과 합류 하여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간다. 남쪽으로 흘러간‘함평천’은 약 5㎞ 지점에서 동쪽에서 서쪽으 로 흐르는‘영산강’과 합류하여 목포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3.8㎞ 정도 거 리에‘함평읍’이 위치하고 있다.

목관묘는 1구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1기밖에 확인되지 않았다.85) 목관묘

1. 이희준, 2011,「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嶺南考古學』58, pp.35-77. 嶺南考古學會.
2. 이희준(2011)의 연구에 의하며, 목관묘의 군집화는 전라도 지방의 경우 Ⅲ단계인 기원전 3세기 후반경으로 추정 하고 있다.

특히 목관묘의 군집화는 대략 鐵器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초기의 철기들은 이른바 전국계 주조철기이며, 농공구들에 한정된다고 한다(이성주 2007, 이희준 2011). 그리고 농업·수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힘을 직접 뜻 하기보다‘교환망을 통해 철기를 입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한다(이희준 2011).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초기 목관묘가 확인된 다수의 유적들- 이를테면 대전 괴전동유적, 예산 동서리 유적, 아산 남성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화순 대곡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등은 대체로 정식조사를 거치지 않은 유적들이며,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집화의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1. 1구역 유구배치도(도면 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관묘의 주변에는 다수의 유구들이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시기의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목관묘의 군집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설치된 초기 목관묘일 가능성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목관묘의

동국문화재연구원 445

는 북쪽으로 인접해서는 조선시대 17호 구상유구가, 북동쪽으로 약 3.5m 떨어져서는 조선시대 31 호 수혈유구, 북서쪽으로 8m 정도 떨어져서는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남동쪽으로 9m 정도 떨어져 서는 조선시대 22호 토광묘가 있다. 남쪽으로 16m 정도 떨어져서는 조사대상지역인 1구역의 경계 가 위치하고 있다.

묘가 설치된 해발고도는 20~21m 사이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되게 북서-남동향 으로 설치하였다. 호남지방에서 조사된 목관묘들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는데, 대표 적인 유적으로는 완주 갈동유적86), 부여 합송리유적87), 논산 원북리유적88), 익산 신동리유적89)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에서 무덤의 축조는 방위보다 지형을 우선시하여 설치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나주 구기촌유적90)의 경우, 10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9기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나머지 1 기는 직교되게 설치되었다.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된 9기는 북서-남동향으로서 방위보다는 지형 을 우선시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호남지방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경우, 초기목관묘들은 대 체로 등고선과 직교91)되게 설치한 반면, 후대로 가면서 점차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 묘광 규모 및 내부구조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규모는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길이 255㎝, 너비 105 ㎝, 깊이 75㎝ 정도이다. 묘광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북동-남서향이다. 여기서는 무덤의 깊이와 내부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기원전 4세기대~기원전 3세기 후반 추정) 와 동시기로 추정되는 유적으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출토된 대전 괴정동유적, 예산

내부에서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옹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추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의 무덤만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목관묘의 군집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하게 논하고 있다. 둘째, 목관묘는 남쪽으로 약 16m 정도 떨어져 조사구역의 경계가 위치하고 있다. 경계부의 바깥은 남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완만한 경사도를 이루고 있어, 조사구역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들과 동일한 성격의 유구들(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삼국시대 주거지 및 분묘, 기타 구상유구 등)이 계속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기대된다.

1. 湖南文化財硏究院, 2005,『完州 葛洞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學術調査報告 第46冊.
2. 이건무, 1990,「夫餘 合松里遺蹟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2, 韓國高古美術硏究所.
3. 中央文化財硏究院, 2001,『論山 院北里遺蹟』.
4. 최완규, 1998,「益山 信洞里 初期鐵器 및 百濟文化遺蹟」, 第41回 全國歷史學大會 發表要旨.
5.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나주 구기촌·덕곡유적』.
6. 영광 군동 B-3·4호 토광묘(목관묘)의 경우, 내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늦어도 기원전 2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2기의 목관묘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했으며, 방위는 동-서향을 취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영광 군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87책.

영남지방의 초기 목관묘인 김천 문당동 1호 묘의 경우도 장축방향이 N-63°-W(북서-남동)이며, 등고선과 직교 되게 설치되었다. 역시 방위보다는 지형을 우선시한 결과로 추정된다. 1호 묘에서는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옹, 요녕식동검, 지석, 용도미상석기, 천하석제옥 등이 출토되어 가장 이른 시기에 설치된 목관묘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김천 문당동유적』, 학술조사보고 제91책.

446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동서리유적, 아산 남성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화순 대곡리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유적 가 운데 아산 남성리유적의 경우, 무덤의 깊이가 (현)지표에서 2m 정도 된다고 한다.92) 그리고 대전 괴 전동유적의 경우도 무덤의 깊이가 2.7m 정도인 것으로 보아 목관묘의 이른 시기부터 심매(深埋)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무덤을 깊게 파는 것은 주검이 귀혼에 의해 교란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함이며, 후대로 가면서 목관묘의 깊이는 얕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93)

<표 15> 단계별 목관묘의 깊이 비교 ( ) : 상부 삭평, 잔존 깊이

|  |  |  |  |
| --- | --- | --- | --- |
| 유 적 명 | 시기구분 | 깊이(㎝) | 출토유물 |
| 대전 괴정동유적 | 기원전 4세기 | 270 정도 | 검파형동기, 방패형동기, 원개형동기, 동탁, 원형점토  대토기, 흑도장경호, 천하석제옥 |
| 함평 초포리 유적 | 기원전 3세기 전반 | (55) | 쌍두령, 조합식쌍두령, 간두령, 동령, 동모, 동과, 동  부, 동착, 동사, 중국식동검, 천하석제옥 |
| 완주 갈동유적  3호 | 기원전 3세기 후반 | 109 | 동촉, 철부, 철겸,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
| 완주 갈동유적 4호 | 기원전 2세기 | 86 | 주조철부, 무문토기 저부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흑  도장경호, 점토대토기(삼각형 및 타원형), 연질대부 호, 시루편 |
| 나주 구기촌  ·덕곡유적 | 기원전 1세기 | 65 | 호형토기, 검파두식, 우각형동기, 삼각형동기, 검초부  속구, 칠기테두리금구편, 철모, 철검, 철부 |

위의 <표 15>를 통해보면, 一見 목관묘의 깊이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깊이가 얕아지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아직까지 전라도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를 대상으로 연구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섣불 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94) 다만 김용성에 의해 영남지방 목관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매의 원리가 퇴색한다는(즉, 시간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얕아진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95) 연 구의 대상 목관묘는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알려진 영천 용전리 목관묘, 창원 다호리 1호 묘, 경주 사라리 130호묘, 경주 탑동 목관묘로서, 그 원인은 묘광의 너비가 넓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양상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96)

다음은 목관묘의 내부구조이다. 목관묘는 나무를 葬具로 택한 한반도 최초의 묘제로서, 땅을 파 서 묘광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넣은 목관을 안치한 다음, 목관과 묘광 사이의 공간 사주(四周)에 별도의 흙을 채워 목관을 보호하도록 하고 봉분을 덮었다. 목관의 내부에는 주검의 성복유물이라고

1.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韓國考古學事典』, pp.192-194.
2. 김용성, 2011,「신라 형성기의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고고학으로 보는 신라의 형성기』, 한국문화재조사기관 협회, 2011 학술심포지움. 그 예시로 든 목관묘가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영천 용전리 목관묘, 창원 다호리 1호묘, 경주 사라리 130호묘, 경주 탑동 목관묘 등이다.

국립경주박물관, 2007,『영천 용전리 유적』,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19책.

1. 대부분 목관묘의 연구에서는 묘광의 규모/길이, 목관의 길이/너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묘광의 깊이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김용성, 2011,「신라 형성기의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고고학으로 보는 신라의 형성기』, 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 2011 학술심포지움, PP.106-109.
3. 이에 대한 반론은 동국문화재연구원, 2019,『안동 가곡리·예천 산합리 유적Ⅱ』(33책)과『달성 감문리 유적』, 동국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34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국문화재연구원 447

할 수 있는 장신구 등이, 공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관 주변의 바닥, 충전토 및 그 위, 목관 의 위에 부장하고 묘광바닥의 중앙에 요갱(腰坑)을 파서 그 안에 부장하기도 한다.97)

본 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경우, 충전토가 확인되고 割石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순 수목관묘인 것을 알 수 있다. 무덤의 규모도 크지 않아 요갱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충전토의 상 면에 木器를 안치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도 토기류 2점뿐이다. 피장자의 침향은 알 수 없지만, 능선의 상위쪽인 북동쪽으로 추정된다.

1. 호남지방 목관묘의 군집화와 철기의 등장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호남지방 목관묘유적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a: 얕은 구릉상에 입지 한다. b: 주변 가까이에 하천이 입지하고 있다. c: 이희준(2011)의 Ⅰ·Ⅱ단계(기원전 4세기~기원 전 3세기 전반)에는 목관묘의 군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d:Ⅰ단계에 출토되는 토기류는 흑도장 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이다. e: 목관묘 조영 초기단계부터 적석목관묘와 (순수)목관묘가 조영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f: 초기 목관묘의 장축방향은 방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형을 우선시해서 축조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하였으며, 후대로 가면서 점차 등고선과 평행하 게 축조했다. g: 목관묘의 군집화는 철기가 출현하는 Ⅲ단계(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는 것 등이다.98)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무래도 c와 g일 것이다. 이희준의 Ⅰ·Ⅱ단계에 서 나타나지 않던 무덤의 군집화와 철기가 Ⅲ단계부터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무덤의 군집화 및 철기부장의 시작)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검토 해보고자 한다.

먼저, 무덤의 군집화에 대해 검토해보자. 최근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호서·호남지방의 목관 묘 가운데 1기 또는 2기만 확인 또는 조사된 유적이 다수 있다. 이 유적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대전 괴전동유적, 예산 동서리유적, 아산 남성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화순 대곡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영광 군동유적 등이다. 이 유적들 가운데 영광 군동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식조사 를 거치지 않고 우연히 또는 농사와 관련된 작업 도중 확인되어 무덤의 구조, 출토유물의 양상에 대 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申告者의 傳言에 의존한 바가 크다.99)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해당 분묘(목관묘)가 단독으로 造營된 유적(單獨墓) 이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목관묘유적은 대부분 얕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점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一例로 함평 초포리유적의 경우

1. 김용성, 2011,「신라 형성기의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고고학으로 보는 신라의 형성기』, 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 2011 학술심포지움.
2.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겠으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은 보고서 고찰 담당자의 연구 능력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에 기인함을 고백한다.
3. 물론 함평 초포리유적이나 화순 대곡리유적의 경우,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새롭게 이루어 져 목관묘의 내부구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448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도 공사 지점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주변 일대가 얕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많 은 무덤들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예시로 든 다수의 유적들 가운데 많은 수의 유적들은 단독묘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현재까지 1기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記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100)

다음으로는 철기의 부장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희준(2011)의 연구에 의하면 Ⅲ단계(기원전 3세 기 후반)에 이르면 무덤의 부장품으로 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는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 1·4호, 완주 갈동 3호, 논산 원북리 나-1·6 호, 다-1호 등이다. 이 가운데 논산 원북리 나-1·6호를 제외한 모든 무덤에서 철공구류인 철부, 철착, 철사,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초기의 철기들은 전국계 주조철기이며, 농공구류에 한정된다. 이처럼 주조철기의 일부 기종만 유입된 이유는 변형된 동아시아 세계체계 초기까지도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호작용이란 본질적으로 이념적인 것이었지 실제적인 정치·경제적인 성격은 가지지 못하 였기에 다량의 실용 철제품이 유입되어 활용되지 않고 일부 철제품이 소량만 유입되어 제 지역 정치 엘리트의 매장의례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01) 즉, 철제품의 경우 개별 분묘에서 1~2점만 출토되 고 있어 실생산용구로서의 의미는 희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희준(2011)의 지적처럼 이 철제 품들은 어떻든 대외 연계망을 이용한 수장의 경제적 기반이 앞 단계들보다 훨씬 증대되었음을 가리 키는 奇物임과 동시에, 수장 및 그 직속집단102)들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 원전 2세기 후반 이후로 무덤들이 군집화하는 영남지방의 진·변한‘國’의 성립을 가리키는 의미 로 해석된다는 이희준의 견해103)를 받아들인다면 목관묘의 군집화와 철제품의 출현은 호서·호남지 방에서의‘國’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물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옹과 흑도장경호 각 1점이 출토되었으며, 목기나 청동류 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토된 2점의 토기류를 검토하여 목관묘의 축조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원형점토대옹(36)은 원형의 점토띠104)가 구연단의 바깥에 부착되어 있으며, 구연단의 내측

1. 물론 이 유적들이 모두 대규모의 유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수의 무덤만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실제 화순 대곡리유적의 경우, 청동유물이 출토된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에 대한 조사 결과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립광주박물관, 2013,『화순 대곡리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66책.

1. 李盛周, 2007,『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학연문화사.
2. 이성주는 이를‘지배적 친족집단’이라 불렀다.

李盛周, 2007,『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학연문화사.

1. 이희준, 2002,「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 일반적으로 점토띠의 단면형태는 圓形, 圓形, 三角形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형→삼각형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점토띠의 발생배경은‘아가리의 보강’또는‘손잡이와 같은 역할’로 추정하기도 하며(한상인),‘신속한 제작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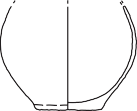
서길덕, 2006,「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38.

동국문화재연구원 449

은 짧게 외반하거나 외반현상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 면은 평저굽이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최대동경의 위치, 저 부의 형태, 동체의 부푼 형태105), 몸통최대지름의 위치, 높이의 변화, 아가리턱 내측의 변화, 점토 띠 단면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106) 본 보고서에서는 서길덕(2006)이 여러 가지 속성 가운 데 시간성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아가리턱 내측의 변화 및 점토띠의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삼 았다. 먼저, 아가리턱 내측의 변화는 직립/완만한 외반형에서 꺽임 외반형으로 구분되는데, 後者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말기에 주로 관찰된다고 한다(서길덕 2006, 42-43). 그 리고 점토띠의 단면형태가 원형→삼각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이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옹(36)은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보령 교성리 6호 주거지 출토품(도면의 좌측)과 유사하며, 아가리 내측의 변화는 보 성 교성리 6호 주거지 출토품(도면의 우측)107)과 유사하다. 교성리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4~3세기로 추정하기도 한다.108) 그리고 역사적 사건인 燕의 침입과 관련시켜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을 기원전 4세기 말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09)

|  |  |
| --- | --- |
|  |  |
|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목관묘 출토(축척부동) | 보령 교성리 6호 주거지 출토(축척부동) |

흑도장경호(35)는 동체의 견부에서 구연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목을 가졌으며, 동 체의 형태는 圓形이다. 바닥면에는 평저굽이 형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목높이/기고의 比, 몸통의 형태, 저부의 형태, 목높이/몸통높이의 비, 몸통 최대경의 위치, 굽의 형태, 목부분 및 아가 리의 형태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서길덕(2006)의 견해처럼 몸통의 형태변화와 목부분 및 아가리의 형태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 몸통형태의 변화는 원형(A)→양파형(B)→타원형(C)→돌출형(D)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목의 형태는 광구직선형(1)→직선형(2)→직립외반형(3)→내만형(4)→꺽임형(5)으로 변화

1. 노미란, 1998,「금강유역 점토대토기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 서길덕, 2006,「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6,『나주 구기촌·덕곡유적』, PP.242-243.
3. 교성리 6호 주거지 출토 유물(도면 2의 좌측)의 원형점토띠에는 손가락 끝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
4. 국립부여박물관, 1987,『保寧校成里住居址』, 국립부여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책.

이강승, 1986,「보령 교성리 주거지」,『한국고고학 시대구분의 제문제』, 제1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노미란, 1998,「금강유역 점토대토기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재인용

1. 노미란, 1998,「금강유역 점토대토기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0.

450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한다고 한다. 따라서 흑도장경호(35)는 몸통형태 원형(A)과 목 형태가 직선형(2)을 띤다. 이와 유사 한 형태는 수석리 및 아산 남성리유적 출토품을 들 수 있다. 남성리유적 목관묘는 이희준(2011)에 의하면 그의 분류 Ⅰ단계인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축조시기는 기원전 4∼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다만 토 기류 이외에 동반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축조시기를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 을 밝혀두고자 한다. (장용석)

|  |  |
| --- | --- |
| 광구직선형 직선형 직립외반형 내만형 꺽임형 |  |
| 흑도장경호 목 형태(서길덕 2006, p.55에서 전재) | 아산 남성리 |

# 삼국시대 주거지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내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주거지는 1구역에서 8기, 2구역에서 2기 등 모두 10기가 조사되었다.

1구역의 주거지는 원지형의 삭평이 심하여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다 내부에서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2구역의 주거지 역시 상부삭평 및 후대유구 중복으로 훼손이 심한 편인데, 화 재로 폐기되면서 유구 내부에서 소량이나마 유물과 연대측정을 위한 목탄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거지는 잔존 평면형태로 보아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모두 방형계로 볼 수 있다. 내부시설은 벽 구와 주공이 주로 확인되는데 이외 적석이나 수혈이 확인되거나, 사면부의 상부쪽 외벽면으로 돌출 된 배연구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1구역의 주거지는 피열흔 조차 남아 있지 않은 유구가 대부분이 고, 2구역은 1호 주거지에서 아궁이 흔적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이, 2호 주거지에서 유구 노출조사 과정에서 동벽에 접해 타원형의 피열흔적이 확인된다.

벽구는 1구역 3호·7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벽구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ㄱ자형 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벽구 굴광의 크기는 너비 10∼30㎝, 잔존깊이는 3~8㎝ 내외이다. 벽구의 벽면형태가 대부분 ㄱ자형으로 잔존하는 이유는 경사면에 위치한 유구의 잔존상태가 1/3에도 미치 지 못하거나 주거지 벽면의 2면만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1구역 1호 주거지나 2구역 2호 주거 지처럼 유구 벽면 3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ㄱ’자형으로 2면을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전체 적으로 전면을 연결한 벽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벽구는 평균 너비가 약 20㎝ 내외인데, 각 주거 지마다 너비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거지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때문에 함평 사거리 명암유 적 삼국시대 주거지 내 벽구는 사방벽면을 세우기 위한 구조라기 보다는 주거지 내부의 배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벽구 깊이는 평균 6㎝ 내외로 너비에 비해 편차가 적으나 이는 유구 바닥면의 잔존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국문화재연구원 451

바닥면 주공은 1구역 3호·5호·7호를 제외한 주거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대부분 굴광 모서리에 인접한 바닥면에서 주혈 1개 내지 2개만 남아 있는 사주식 주거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구역 1호 주거지 내부에는 사방모서리의 주혈 외에 이를 보조하는 소형 주혈 수 개가 추가되어 있다. 명 암유적에서 사주식 주거지는 7기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주공 간 거리를 알 수 있는 주거지는 1구역 1호·2호·8호와 2구역 1호·2호가 있다. 잔존상태에 따라 주공 간 거리를 알 수 있는 경우 추정 치를 제외하고 1.6~1.95m 내외인데, 주거지 내 주공 내부 규모는 평균 1.77m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13㎡ 정도이다.

이 외에 내부 주공은 없으나 일정범위의 내부 면적을 갖고 있는 평면형태가 방형인 수혈 가운데, 유구의 벽면을 비교적 수직으로 굴착하고 바닥면을 편평하게 정지한 1구역 3호와 배연구의 흔적 이 남아 있는 7호 수혈유구 역시 주거지로 분류되었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1구역에서 확인되 는 삼국시대 주거지는 주거가능 판단여부에 필수인 보온 및 취사를 위한 아궁이(노지)흔이 전혀 남 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범위의 바닥면적을 갖거나 배연구를 갖출 경우 주거지로 분류하여 보고하 였다. 총 10기 유구 가운데 1구역 3호와 7호 주거지와 여타 유구보다 이른시기로 추정되는 5호 주 거지를 제외한 함평 명암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주로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로 볼 수 있다.

배연구는 5호·7호·8호에서 확인되었다. 배연구는 모두 지형이 높은 북쪽 벽면의 한쪽 모서리 쪽에 치우쳐 확인되는데,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배연구가 연결된 북쪽 벽면에 아궁이가 설치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2구역 1호 주거지 내 아궁이로 추정되는 원형수혈 역시 동쪽 벽면의 북쪽 모서리에 인 접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 배연구의 위치를 따라 한쪽 모서리 쪽에 치우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내부시설로는 1구역 2호와 같이 주공이 위치할 자리에 적석더미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벽구시설과 연결된 이단굴광 수혈 내에 다른 주거지 주공의 간격과 대동소이한 지점에 적석더미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기둥받침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1구역 2호 주거지의 북벽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주공과 인접한 벽면에‘ㄱ’자형 내부수혈이 확인되고, 2구역 1호 주거지 내 동쪽벽면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지점의 주공과 인접한 벽면에서 아궁이 시설과 이와 연결된‘ㄱ’자형 내부수혈이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2구역 1호 주거 지 내 내부수혈이 아궁이로 추정되는 원형 수혈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 아궁이 시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1구역 2호 주거지 내에서 회백색 토기완 1점, 8호 주거지 내에서 연질 선문타날 토기 구연부편 1점, 그리고 5호 주거지 내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나 소성상태 로 보아 인근의 삼국시대 주거지 보다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유물은 토기완 이 출토되는 시기를 주 사용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구역은 1구역에 비해 비교적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1호 주거지 내에서 소성상태가 양호한 단경호 구연부편 1점, 호 저부편 2점, 호 동체편 2점, 완편 1점이, 2호 주거지 내에서 연질 호 구연 부편 1점, 연질 호 기벽편 1점 외에 지석 1점이 출토되었다. 1구역에 비해 2구역에서 다수의 유물이 확인된 것은 불시에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의 특성으로 일부나마 잔존한 것으로 보인다.

452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표 16>‘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삼국시대 주거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구 번호 | | 조성 위치 | 평면 형태 | 굴광규모 (길×너×깊m) | 잔존주공수/ 주간거리(m) | 벽구 | 배연구 | 아궁이 | 이외 시설 | 출토유물 | 비고 |
| 1  구 역 | 1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3.44×1.96  ×0.28 | 2 /  동-서 1.8 | 3면 중 2면 너비 9-13㎝ 깊이 3-6㎝ | - | - | 외부 주혈1 |  |  |
| 2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3.61×1.6×  0.27 | 1 / 추) 동-서  1.95 | 3면 중 2면 너비 10-17㎝ 깊이 4-8㎝ | - | - | 내부 수혈, 적석 | 회백색 토기완1 | 유구 내 이중 수혈 |
| 3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2.38×0.94  ×0.26 | - | - | - | - | - |  | - |
| 4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5.69×3.89  ×0.43 | 1 / - | 2면 중 2면 너비 10-15㎝ 깊이 6-8㎝ | - | - | - |  | - |
| 5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4.53×2.60  ×0.40 | - | 3면중 3면 너비 14-20㎝ 깊이 4-8㎝ | 서북쪽 모서리 | - | - | 경질무문 토기저부편1 | 청동 기주 거지 파괴 |
| 6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2.3×1.35×  0.1 | 1 / - | 2면 중 2면 너비 15-30㎝ 깊이 3-5㎝ | - | - | - |  | 5호 파괴 |
| 7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1.84×1.69  ×0.8 | - | - | 서남쪽 모서리 | - | - |  | - |
| 8 | 동남 사면 | 방 형 계 | 4.67×3.60  ×0.36 | 2 /  동-서 1.6 | 2면 중 2면 너비 14-16㎝ 깊이 3-8㎝ | 서북쪽 모서리 | - | - | 연질 토기 경부편 1 | - |
| 2  구 역 | 1 | 북 사면 | 방 형 계 | 3×  2.98×0.23 | 2 / 추) 남-북  1.8 | 2면 중 1면 너비 29㎝ 깊이 5㎝ | - | 동벽 인접 | 주혈, 내부 수혈, 내부구 | 단경호편3, 호 동체편2, 완편1 | - |
| 2 | 북 사면 | 방 형 계 | ×× | 2 /  남-북 1.7 | 3면 중 2면 너비 37㎝ 깊이 6㎝ | - | 동벽 인접 | - | 호구연편1, 연질호편1, 지석1 | - |
| 총 계 | 10기 | |  |  |  |  |  |  |  |  |  |

호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의 입지는 크게 보아 구릉상부에서부터 구릉하부, 그리고 평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110),‘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은 동남쪽 또는 북쪽으로 낮아지는 구릉중상 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계만 조사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의 원삼국시대 이후 주거지 평면형태가 일부 원형계가 확인되는 경우 도 있으나 절대다수가 방형계로 보고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근 마산리 표산유적은 구릉상부와 중상부 경사면을 따라 대규모 방형계 주거유적으로 구릉상부에 가까운 Ⅴ지구 유적은 2∼3세기, 그 외 구릉중상위 유적은 4∼5세기경으로 보고하고 있다.111) 노적유적은 사주식 주거지와 비사주식 주

1. 金承玉, 2006,「호남지방 마한주거지의 편년」,『湖南考古學報』제11집, 湖南考古學會.
2.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8,『함평 마산리 표산유적Ⅰ·Ⅱ·Ⅲ』

동국문화재연구원 453

거지가 함께 확인되는데, 주로 외부구가 있고, 주거지 내부의 벽구가 없는 형태이다. 발형, 장란형 토기 외에도 분주토기, 아궁이틀 등 연도와 함께 발달된 부뚜막 형태가 확인되는 5~6세기경 유적으 로 추정되고 있다.112) 반암유적은 내부 주공이 없는 방형계 주거유적으로 화재폐기되면서 탄화된 목 재와 부뚜막 등 아궁이 시설이 남아 있는데 시기는 외반구연호와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주구 토기, 양이부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물로 보아 3세기경을 중심 조성시기로 추정하고 있다.113)

이렇듯 인근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유적은 주로 3세기에서 6세기 사이로 비정되는데, 명암유 적은 유구의 수량 및 잔존상태가 미미하여 방형계·사주식 또는 비사주식 또는 아궁이흔 유무 등의 개별 유구형태만으로 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 출토유물 역시 비교적 시기별 기형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란형·발형·호형 토기 가운데 의미 있는 속성이 복원되는 유물이 거의 없고, 각 시기의 표지유물이 될 수 있는 특정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역시 상한과 하한을 확정지을 근거도 빈약하다. 다만, 유물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기벽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호형·발형 연질토기편과 같이 3세기경의 제작기법을 그대로 이어온 연질유물과 함께 경질 토기완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4세 기에서 5세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은 여러 시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있으나 동시대 유구가 중복된 경우는 드 문 편이다. 삼국시대 주거지 가운데 1구역 5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 며, 이후 1구역 사주식 6호 주거지가 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재조성되어 있다. 1구역 5호 주거지는 벽구와 배연구를 갖춘 말각방형 주거지로 내부에 경질무문토기편이 출토되어, 이후 중복되는 삼국 시대 주거지 보다 이른 3세기 이전 원삼국시대 유구로 볼 수 있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삼국시대 유구 가운데 사주식 주거지가 비율이 높고, 특히 유물이 출토 되는 유구는 이른시기 유구인 1구역 5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사주식 유구 내에서 출토되고 있다. 사주식 유구 내 출토 유물과 함께 전북지역의 사주식 주거지의 하한을 약 6세기 초반까지로 보는 견 해와114) 토기완이 대체로 5세기 중·후반 유적에서 빈출되고, 회청색 경질토기 출토율이 높아지는 점 115)이다. 그리고 2구역 1호·2호 주거지 내 탄소시료의 절대편년116) 등을 고려하였을 때(부록 5 참 조),‘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3세기 이전부터 조성되어 주거지의 주 사용시기는 4~5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다. 토기완은‘함평 사거리 명암유적’내 삼국시대 고분에서 확인된 유 물과도 비교되나 매장지와 주거지의 공간이 거의 중복 범위에 있어 주거지 유물과 고분유물에는 일정 기간의 시기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유구의 잔존수량은 적은 편이나 야트막 한 구릉의 동남사면부에 해발 24~28m 내외, 그리고 해발 21~23m 내외를 기준으로 서로 인접하

1.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5,『咸平 老迪遺蹟』
2.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7,『咸平 磻岩遺蹟』
3. 鄭一, 2005,『全南地方 3∼5世紀 四柱式住居址 硏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論文.
4. 이영철, 2001,「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Ⅰ)-全南 務安 良將里 遺蹟을 對象으로-」,『湖南文化財硏究院硏究論文集』제1호
5. 부록참조. 함평 2구역 1호 : 1620±30 yrs(BP) 함평 2구역 2호 : 1710±30 yrs(BP)

454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여 있거나 10~20m 거리를 두고 비교적 열상으로 확인된다. 유구의 수량이 적고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은 후대 상부삭평으로 원지형이 잘려나가면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주거지의 수량이 적은 것에 비해 사주식 주거지의 비율이 높고, 비록 유물이 출토되는 유구의 수 량과 유물 총량 역시 빈약하나 유물 간의 시간 간격이 넓은 편이다. 이는 해당 유적지에서 청동기시 대부터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서로 시대를 달리하여 주거지와 매장지가 구분되어 꾸준히 사용되다 가 삼국시대 주거지의 주사용 시기인 4∼5세기 이후 6세기 경에는 주로 매장구역으로 이용되면서 주거구역은 구릉 말단부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 근현대 분묘구역 과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원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김영아)

#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 1) 유구 형식 분류

함평의 석실묘는 공간적으로는 전남지역 석실묘의 변화 과정상에서 이해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석실묘는 크게 영산강 상류지역, 영산강 중류지역, 남해안지역, 도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함평은 광주, 장성, 영광과 함께 영산강 상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117) 한편 함평을 무안, 영광과 함께 영 산강과 다른 서해안권역118)으로 보기도 한다.

영산강유역에는 원래 백제와는 다른 토착문화가 있었는데, 백제와는 다른 대형옹관묘로 대표되 는 문화가 존재했다. 그 대형옹관묘는 5세기 경에 성행하다가 6세기에 이르면서 쇠퇴하고 석실분이 등장하다는 견해119)가 제기되었으나, 이 지역 석실분의 조사가 미진하여 구체적인 실상의 규명은 어 려웠다. 이후 주변의 많은 관련 유적들이 조사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0)

묘제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형식과 편년설정이다. 본 유적에 대한 석실묘는 5기 에 불과하고, 잔존상태도 아주 불량하여, 검토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시공간적인 위치를 설정 하고자 한다.

우선 이남석의 석실분의 연구성과에서는 형식별로 편년설정을 하였는데, 석실분의 기원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먼저 백제사회 횡혈식 석실분의 출현을 4세기 낙랑이 대동강까지 진출한 역사적 기록과 함께, 한강유역 석실분과 같이 고구려 적석총의 중요한 속성 중인 기단의 존 재를 근거로 하여 고구려고분 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121) 그러나 기존의 토착문화가 존재한 지역에 유입된 백제의 횡혈식 석실분에 비하여 일반적인 묘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남석은 천정의 축조방식에 주안점을 두면서 편년을 설정한다.

가장 빠른시기의 석실분 천정을 네벽조 줄임식으로 구분하고 석실분의 시원형으로 보았다. 그 시

1. 조근우, 1996,「전남지역의 석실분 연구」『, 한국상고사학보』제21호.
2. 임영진. 1997,「호남지역 고분의 내부시설: 전남지역 석실봉토분의 백제계통 재고」『, 호남고고학보』6.
3. 성낙준, 1982,「영산강유역의 옹관묘 연구」, 전남대석사학위논문.
4. 이남석, 1993,「백제 횡혈식 석실분의 연구-형식변천과 편년을 중심으로」,『고문화』42·43호 합집. 조근우, 1996,「전남지역의 석실분 연구」,『한국상고사학보』제21호.
5. 西谷正, 1980,「백제 전기고분의 형성과정」,『백제문화』13.

동국문화재연구원 455

기는 4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 5세기 중엽에 궁륭식 천정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근우122)는 형식 분류 속성을 후벽석재에 따라 6가지, 측벽석재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였 으며, 석실벽 전체의 단면형태에 따라 7가지, 현문에 따라 3가지, 연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분 류군을 설정하였다. 분류한 결과, 속성들 간에는 일정한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 조사된 자료가 천정부가 거의 유실되었으며, 벽석 하단만 잔존하여도 어느 정도 시공간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는 크게 3시기로 나누어진다. 1기는 석실분이 축조되면서 한편 옹관묘도 병행해서 축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류지역에 옹관묘가 밀집되어 있는 현상과 석실묘가 축조되는 곳은 영상강 상 류지역이다. 따라서 고분은 군집을 이루지 않고 밀집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 유입기의 양 상으로 보인다. 2기는 현문의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횡혈식 구조만 나타나는 1기와 달리 횡 구식구조가 병존한다. 할석재의 석실이 거의 소멸하는 단계이며, 분포지역이 영산강 하류지역까지 확장된다. 또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난다. 3기는 현문의 구조가 장대석 문주석을 구축하는 시 기이다. 천정은 괴임식과 사벽수직식이 유행한다. 이 시기는 도서지역까지 백제석실분이 넓혀진다.

<표 17> 전남지역 석실 형식별 변천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기/편년 | | 조근우 | | | | | | 이남석 |
| 형식 | 현문 | 측벽 | 후벽 | 단면형태 | 연도 | 천정형태 |
|  | 475 | Ⅰ |  | 전체 할석축조 | 전체 작은 할석 축조 완곡선 | 측ㆍ후벽 기부 완내경 상부 강내경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
| 1기 | 510 | Ⅱ | 괴석 류부 구축  폐쇄석 없음 | 전체 괴석축조 | 전체 괴석축조 하부수직, 상부 내경 | 측ㆍ후벽 전체 완내경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네벽조 궁륭식 |
| Ⅲ | 기부 괴석or 판석 수적, 상부 할석 또는 괴석 | 기부 괴석or 판석 수적, 상부 작은 괴석 사이 작은 할석끼움 | 측 기부 완내 경/ 후 기부수 직 상부 완내경 | ? |
| 2기 | 550 | Ⅳ | 장대석 류부 구축  하방석 갖춤 | 전체 괴석축조 | 전체 괴석축조 하부수직, 상부 내경 | 측 기부 수직 상 부 완내경/ 후 전체 완내경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궁륭식 터널식 아치식 |
| Ⅴ | 기부 괴석or 판석 수적, 상부 할석 또는 괴석 | 기부 괴석or 판 석 수적,상부 작은괴석 사이 작은 할석끼움 | 측ㆍ후벽모두 기부수직 상부 완내경 | 측벽 석축만 존재 |
| Ⅵ | 전체 괴석축조 | 전체 괴석축조 하부수직, 상부 내경 | 측ㆍ후벽모두 기부 수직 상부 완내경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 Ⅶ | 전체 납작할석 축조 | 납작할석 평적 하부수직 상부완내경 | 측 기부 수직 상부 완내경/ 후 전체 완내경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1. 조근우, 1996,「전남지역의 석실분 연구」,『한국상고사학보』제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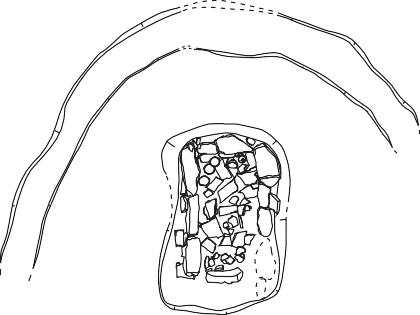
456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 600 | Ⅷ | 문주석 세워 연도쪽에서 문주석 안쪽 으로 돌출 | 1/2 판석 수직수적 상부 할석 완내경 | 1/2 판석 수직 수적 상부 할석 완내경 | 측ㆍ후벽모두 기부 수직 상부 완내경 | 측벽 석축만 존재 | 괴임식 수평식 양벽조 |
| Ⅸ | 1/2 판석 상부 장대석 구축 | 1/2 판석 상부 장대석 구축 | 측 기부 수직, 상1단 내경/후 전체 수직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
| Ⅹ | 전체 몇매 판석축조 | 1/2 판석 상부 장대석 구축 | 측ㆍ후벽모두 전체 수직 | 측벽 석축과 천정 존재/ 석재구조 × |

<표 18>‘함평 사거리 명암유적’1구역 내 석실묘 형식분류별 속성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유구명 | 현문 | 바닥 | 측벽 | 후벽 | 단면 형태 | 연도 | 천정 형태 | 평면비 | 형식 |
| 1 | 1호 | 잔존× | 납작 할석 | 할(괴)석 | 괴석 | 기부 수직 | 잔존× | 잔존× |  | Ⅱ |
| 2 | 2호 | 잔존× | 납작 할석 | 판석? | 할(괴)석? | 기부수적? | 잔존× | 잔존× | 2.3 : 1  (71.7×30.6) | Ⅲ |
| 3 | 3호 | 잔존× | 납작 할석 | 납작할석 | 납작할석 | 기부수직? | 잔존× | 잔존× |  | Ⅶ |
| 4 | 4호 | 잔존× | 납작 할석 | 괴석 | 괴석 | 기부 수적 | 잔존× | 잔존× | 1.9 : 1  (71.7×30.6) | Ⅱ |
| 5 | 5호 | 잔존× | 판석 | 판석? 장대석? | 판석? 장대석? | 기부수적 | 잔존× | 잔존× |  | Ⅸ~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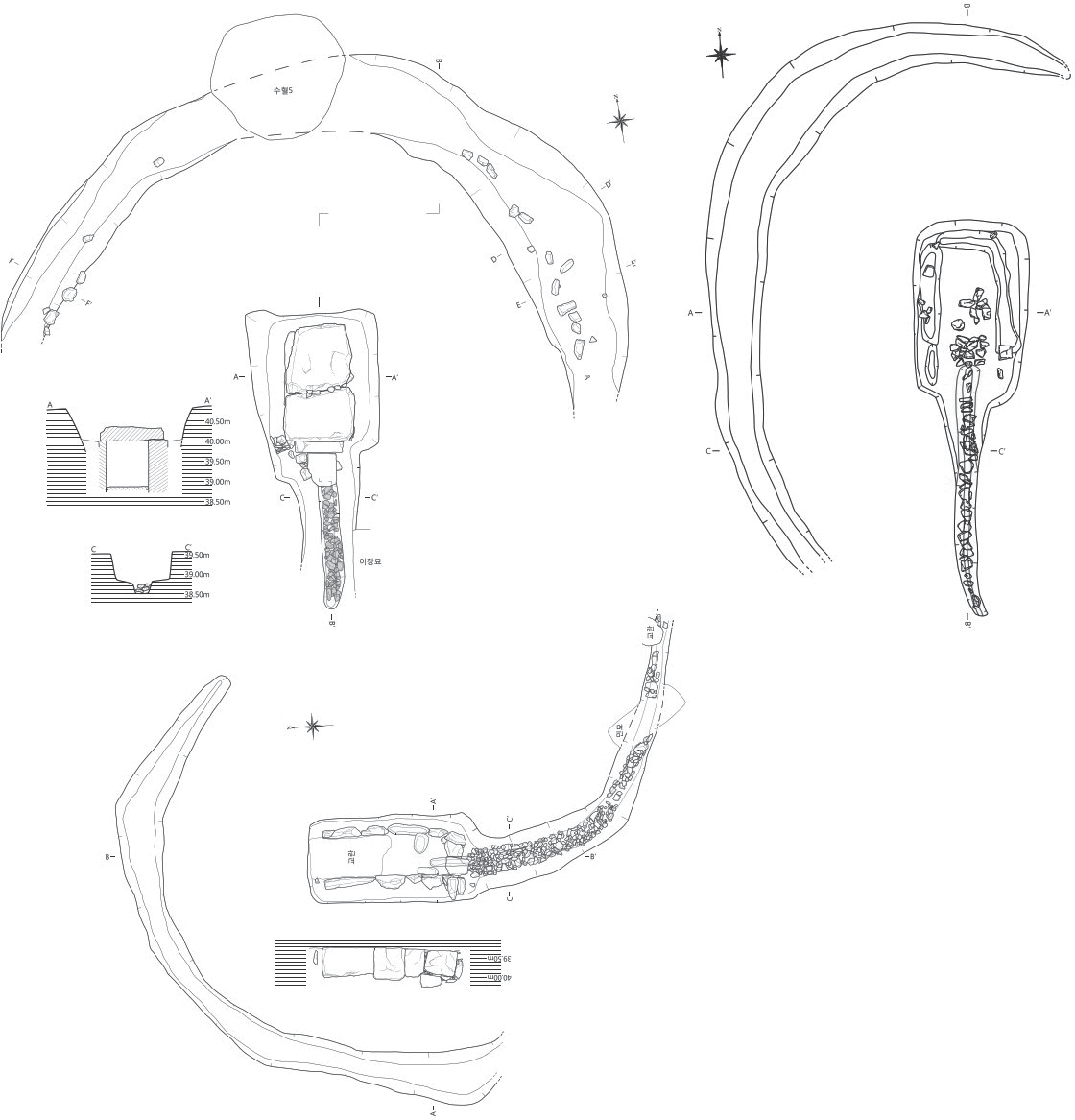
석실묘는 대부분 기부만 잔존한 상태이며, 기부도 교란되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구역 4호 석실묘가 주구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래 분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발굴조사된 유적에서 주구를 갖춘 예들이 있다. 함평 손불면 죽암리 소명고분123)에서 원형의 주구가 발굴조사되 어 동일한 양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묘들은 대부분 지상식이다. 소명유적의 원형고분도 매장주 체부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지상식이다. 또한 전주 만성동·여의동 유적124)에서도 다수의 석실묘에 주구가 돌려져 있는 양상으로 조사되어 참고가 된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1구역 4호 석실묘 함평 소명유적 원형고분

1. 전남대학교박물관, 2003,『함평 소명 주거지』.
2. 전북문화재연구원, 2018,『전주 만성지구(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고 내 유적. 전주 만성동·여의동유적』.

동국문화재연구원 457



②

①

③

전주 만성동·여의동유적 석실분(①: 14호, ②: 19호, ③: 23호)

## 편년

석실묘는 축조양식의 속성을 검토한 결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들 속성들이 토기의 편년과도 부합되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본 유적에서 석실묘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3기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 1기는 1점만 출토되어 전체적인 양상 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편년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검 토하고자 한다. 통일신라기에 대한 연구는 편년설정에 있어서 절대편년을 기준으로 하여 변천 과정 을 정리한 홍보식의 연구성과를 참고하기로 한다.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우선 절대편년에 접근이 가능한 유적으로는 신라지역에 안압지, 백제지역에 부소산성이 있다. 이

458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들은 대체로 7세기 중후엽에 속하는데, 석실묘의 도입은 신라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 냉수리고분125) 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들을 중간단계로 놓은 다음, 앞 단계 6세기와 뒷 단계 8세기대로 설정한다 면, 다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백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인천 검단리유적126)은 통 일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된 유구들이 존재하므로 단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표 19>에서 안압지와 부소산성 출토품 의 특징은 6세기 전반부터 유행하는 인화 문이 6세기 후반부터 다양해지면서 7세기 중엽에 보편화된다. 6세기 인화문은 주로 컴프스문이 보편적인데 비하여 7세기 인화 문은 마제형문, 수적문, 점열문 등으로 다 양하게 구사된다. 개의 꼭지는 단추형에서 점차 보주형으로 변화한다. 고배는 단각화 되면서 꼭지와 일치형으로 변화한다. 그 러다가 점차 투창은 투공으로 바뀐다. 이 러한 영향은 안압지와 부소산성의 합에서



도 나타나며, 병형토기도 변화하여, 8세기 에는 안압지 출토 장경호가 구형에서 일본

4호 석실묘 출토 개의 문양

출토품과 같이 장동형으로, 구연은 이중구연 형태로 변화하여, 점차 고려시대 병으로 이어진다.

본 유적에서는 1구역 4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토기 개(59)에는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꼭지는 접시형이 부착된 것으로 볼 때,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로 편년설정이 가능하다.

1구역 4호 석실묘의 나머지 토기들은 대부완과 완인데, 일부 전통적 기법으로 제작되어 아직도 백제의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하여 1구역 1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토기 는 통일신라 토기의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완이 다수 출토되는 점이 일종의 지역 색이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종으로 보인다. 백제지역은 8세기 전후로 하여 배신이 얕아지다가 거의 접시형태로 얕은 皿形토기로 변화한다. 인천 검단지구 Ⅱ-6지점 2호에서 출토된 고배는 배신 이 점차 얕아져 부소산성 출토품보다 늦은 단계이며, 명형토기로 이행되고 있다. 또한 인천 검단 Ⅱ

-1지점 7호 출토 병형토기는 일본 출토 신라토기와 동체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7세기와 구분되 는 단계 설정이 가능할 것 같다. 8세기 이후에 대체로 신라토기는 화려한 문양이 쇠퇴하며 소박한 토기들이 부장된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함평유적의 석실묘는 빠르면 6세기 후엽에 축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7세기에 군집을 이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1구역 1호 석실묘의 대부완 (53)이 부소산성 출토품 1번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다. 6세기에 축조될 당시에는 지역에서 제작한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1,「영일군 냉수리·흥곡리일대 지표조사」『연보』제2호. 1991). 국립경주박물관, 1995,『냉수리고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한국고고학사전』.

1. 호남문화재연구소, 2020,『인천 검단 마전동·원당동·불로동 유적』.

동국문화재연구원 459

<표 19> 토기편년

|  |  |  |  |  |
| --- | --- | --- | --- | --- |
|  | | 신라지역 | 백제지역 |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
| 6C | 600 | 합천 저포리 D지구 1호 | 인천 검단Ⅱ-1지점 3호 |  |
| 7C | 675 | 안압지(660~670) 출토품    일본출토 신라토기 | 부소산성(660) 출토품 | 석실묘 4호    석실묘 1호    석실묘 1호 |
| 8~  9C | 900 | 일본 출토 신라토기 | 3 인천 검단 Ⅱ-6지점 2호      인천 검단 Ⅱ-1지점 7호 |  |

460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토기를 부장하였으나 점차 통일신라양식 토기가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물레사용이 점차 성행하면서 완이나 대부완의 기종에도 물레흔이 뚜렷하다.

## 3) 입지와 구조와의 관계

백제 석실의 문화적 계통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구조적 속성 못지않게 입지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127) 구조적 속성들이 입지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유적 석실묘의 양상을 검 토하고자 한다.

첫째, 입지에 있어서 본 유적의 석실묘는 야트막한 구릉의 산록에 분포하고 있다. 백제 석실묘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하다가 점차 산록에 군집을 이루게 된다는 경향성과 거의 동일 한 맥락이다.

둘째, 석실구조에 있어서 계측가능한 석실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1호의 경우 방형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주 송산리에서 5세기대에 방형으로 출발하지만, 6세기부터 백제말까지 장방형으로 지 속한다는 흐름과 동일하다.

셋째, 석재에 있어서 전기에는 할석을 사용하다가 점차 괴석이나 할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 유 적 석실묘도 괴석이나 할석 위주로 6~7세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유적의 석실묘는 6세기 이후 백제지역 석실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옥순)

# 조선시대 토광묘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경우는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 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는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가, 초기철기시대는 목관묘, 삼국시대는 주거지와 수혈, 구상유구, 통일신라시대는 석실묘와 수혈, 이후 조선시대는 고상건물지, 수혈, 주 혈, 구상유구, 토광묘 등 다양한 시기에, 여러 종류의 유구가 동일한 레벨상, 같은 층위에서 확인되 었다. 이들 유구는 다른 시기의 유구끼리 중복이 되어있거나 같은 시기라도 다른 종류의 유구끼리 중복된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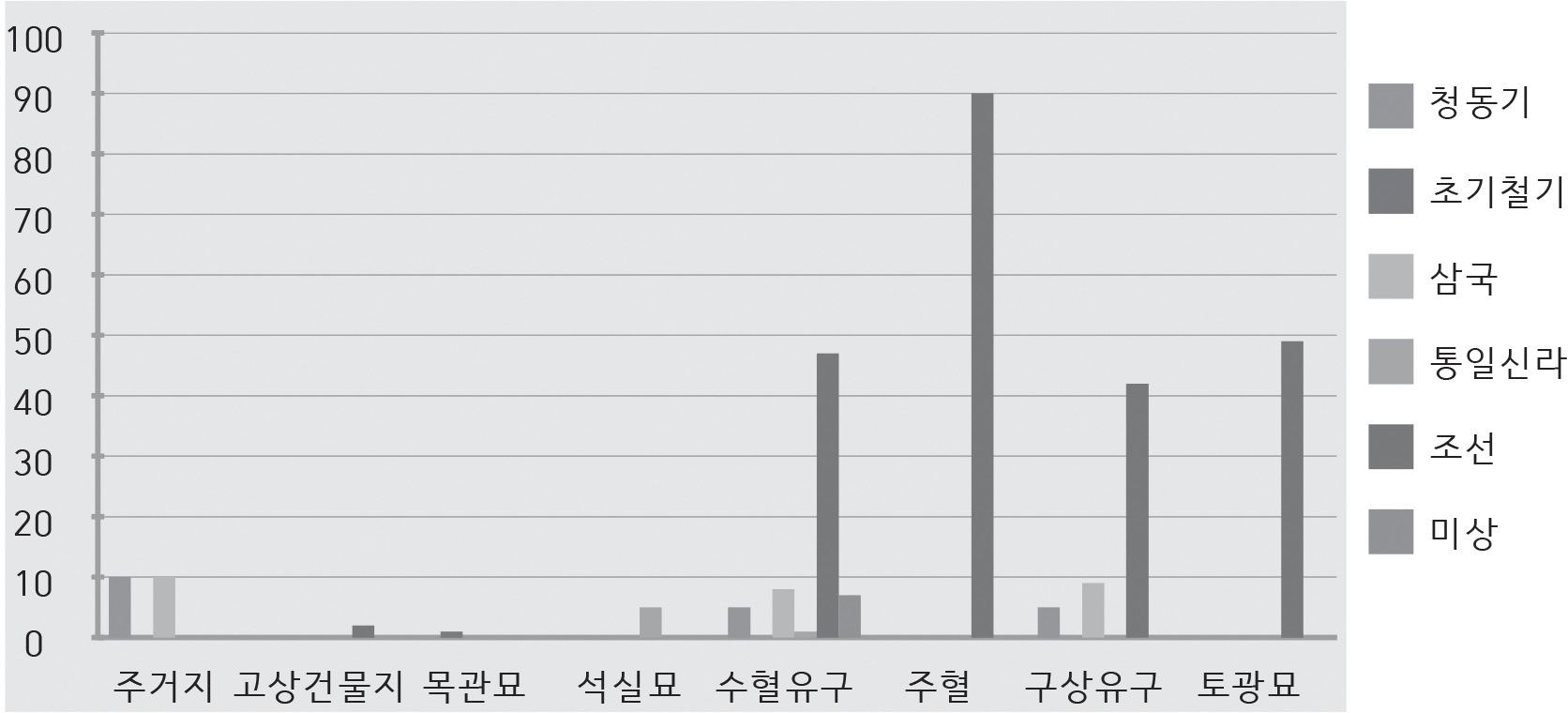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1기를 제외하면 주거지가 중심이 며, 이들 주변으로 수혈, 구상유구 등이 위치하는 등 주거구역으로서 생활유적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실묘가 주를 이루고, 조선시대에는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토광묘가 다수 확인되는 등 분묘유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대가 지날수록 유적이 위치한 구릉사면부 일대는 초기에는 생활유적의 성격이었다가 점차 분묘유적의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변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가 되면 토광묘가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구릉사면부 전역에서 고르게 확인되는

1. 임영진, 1997,「호남지역 고분의 내부시설: 전남지역 석실봉토분의 백제계통 재고」『, 호남고고학보』6. 최완규, 1997,「전북지방 백제 횡혈식석실분」『, 호남고고학보』6.

동국문화재연구원 461

바, 토광묘가 다수 위치하는 구릉사면부 전체가 공동묘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일대가 시대가 변 화함에 따라 묘역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내 유구현황 및 토광묘 비율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확인된 유구 가운데 조선시대 토광묘는 49기로, 1구역에서 39기, 2 구역에서 10기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전체 유구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량에 해 당하며, 유구의 성격이 불분명한 주혈, 수혈, 구상유구 등을 제외하면 토광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전체를 정리하면서, 토광묘 조성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표 20>.

조선시대 토광묘는 내부에서 목관이나 석관 등의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기반층인 풍화암반 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토광직장묘로 판단하고 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원형, 말각장방형 순서로 이루어진다.

1구역의 2호·9호·14호·24호 토광묘를 제외하면, 토광묘는 일단굴광식의 형태를 띈다. 내부 시설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았고, 유물은 1구역의 6호·11호·24호·30호 토광묘 내부에서 백자발 편, 청동숟가락, 동전(화폐), 구슬(유리), 철제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 또한 유구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퇴적토 상부 또는 유구의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이 바닥이 아닌 퇴적토 상부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시신의 매납이 이루어진 후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에서 출토된 유물로 인하여 토광묘의 조성시기를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된 경우는 1구역 6호·11호·24호·30호로, 유물이 동일하게 확인 되는 경우는 없었다.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은 유구의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으 며, 24호 토광묘를 제외하고는 유구의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 1구역 24호 토광묘는 유물이 퇴적토 상부에서 확인되었고, 시신의 매납이 이루어진 후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1구역 6호 토광묘에서는 백자발편 1점, 1구역 11호 토광묘에서는 청동숟가락편 1점, 1구역 24호 토광묘에서는 동전(화폐) 2점과 유리제 환옥 5점, 1구역 30호 토광묘에서는 청동숟가 락 1점과 철제가위 1점이 출토되었다〈표 21〉.

462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표 20>‘함평 사거리 명암유적’내 조선시대 토광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구역 | 호수 | 형태 | | 장축방향 | 장단비 | 크기(㎝) | | | 비고 |
| 평면 | 단면 | 길이 | 너비 | 깊이 |
| 1 | 1구역 | 1호 | 타원형 |  | 북-남 | 2.9:1 | 169 | 58 | 10∼15 |  |
| 2 | 1구역 | 2호 | 세장방형 |  | 북-남 | 3.4:1 | 180 | 52 | 14∼32 | 이단굴광 |
| 3 | 1구역 | 3호 | 말각장방형 |  | 북-남 | 3.1:1 | 175 | 56 | 12∼20 |  |
| 4 | 1구역 | 4호 | 말각장방형  타원형 |  | 북-남 | 2.7:1 | 174 | 63 | 8∼10 |  |
| 5 | 1구역 | 5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1.4:1 | 93 | 67 | 9∼15 |  |
| 6 | 1구역 | 6호 | 타원형 |  | 북-남 | 2.5:1 | 161 | 63 | 4∼9 | 백자발편 |
| 7 | 1구역 | 7호 | 타원형,  장방형 |  | 북서-남동 | 2.3:1 | 177 | 77 | 9∼12 |  |
| 8 | 1구역 | 8호 | 타원형,  장방형 |  | 북서-남동 | 2.6:1 | 228 | 86 | 55∼60 |  |
| 9 | 1구역 | 9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4.6:1 | 199 | 21∼  62 | 14∼27 | 이단굴광 |
| 10 | 1구역 | 10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2.7:1 | 100 | 37 | 8∼12 |  |
| 11 | 1구역 | 11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2.5:1 | 70 | 28 | 4∼6 | 청동숟가락편 |
| 12 | 1구역 | 12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2.7:1 | 128 | 47 | 8∼11 |  |
| 13 | 1구역 | 13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3.6:1 | 168 | 46 | 13∼17 |  |
| 14 | 1구역 | 14호 | 말각장방형  타원형 |  | 북서-남동 | 4.7:1 | 229 | 48 | 32∼61 | 이단굴광 |
| 15 | 1구역 | 15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3.5:1 | 164 | 46 | 8∼15 |  |
| 16 | 1구역 | 16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9:1 | 170 | 57 | 12∼20 |  |
| 17 | 1구역 | 17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3.7:1 | 112 | 30 | 8∼10 |  |
| 18 | 1구역 | 18호 | 장타원형 | U | 남서-북동 | 3.8:1 | 194 | 51 | 14∼20 |  |
| 19 | 1구역 | 19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9:1 | 130 | 45 | 7∼12 |  |
| 20 | 1구역 | 20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2:1 | 134 | 59 | 8∼12 |  |
| 21 | 1구역 | 21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9:1 | 115 | 39 | 3∼16 |  |
| 22 | 1구역 | 22호 | 말각장방형 |  | 북서-남동 | 2.7:1 | 143 | 53 | 10 |  |
| 23 | 1구역 | 23호 | 장타원형 |  | 남서-북동 | 2.3:1 | 167 | 72 | 3∼8 |  |
| 24 | 1구역 | 24호 | 장타원형 |  | 남서-북동 | 3.4:1 | 151 | 44 | 17∼30 | -이단굴광  -동전2,구슬5 |
| 25 | 1구역 | 25호 | 타원형 |  | 북서-남동 | 3.1:1 | 117 | 37 | 5∼26 |  |
| 26 | 1구역 | 26호 | 말각세장방  형 |  | 북서-남동 | 2.3:1 | 132 | 57 | 4∼25 |  |
| 27 | 1구역 | 27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1:1 | 195 | 91 | 5∼38 |  |
| 28 | 1구역 | 28호 | 말각장방형  타원형 |  | 서-동 | 2.7:1 | 172 | 62 | 33∼60 |  |
| 29 | 1구역 | 29호 | 말각장방형 |  | 북서-남동 | 2.6:1 | 198 | 75 | 4∼42 |  |
| 30 | 1구역 | 30호 | 장타원형 |  | 서-동 | 2.7:1 | 155 | 56 | 3∼20 |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
| 31 | 1구역 | 31호 | 타원형 |  | 서-동 | 1.5:1 | 130 | 86 | 6∼33 |  |
| 32 | 1구역 | 32호 | 타원형 |  | 남-북 | 1.6:1 | 150 | 93 | 5∼28 |  |
| 33 | 1구역 | 33호 | 장타원형 |  | 서-동 | 2.6:1 | 100 | 38 | 5∼12 |  |
| 34 | 1구역 | 34호 | 타원형 |  | 서-동 | 2.4:1 | 91 | 37 | 4∼28 |  |
| 35 | 1구역 | 35호 | 말각장방형 |  | 북서-남동 | 1.75:1 | 218 | 124 | 37 |  |

동국문화재연구원 4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1구역 | 36호 | 말각장방형  타원형 |  | 서-동 | 2.98:1 | 164 | 55 | 29 |  |
| 37 | 1구역 | 37호 | 말각장방형 |  | 북서-남동 | 3.5:1 | 209 | 59 | 10∼32 |  |
| 38 | 1구역 | 38호 | 말각장방형 |  | 북서-남동 | 2.5:1 | 198 | 79 | 10∼43 |  |
| 39 | 1구역 | 39호 | 장타원형 |  | 북서-남동 | 2.9:1 | 211 | 72 | 10∼38 |  |
| 40 | 2구역 | 1호 | 타원형 |  | 남-북 | 2.44:1 | 93 | 38 | 10 |  |
| 41 | 2구역 | 2호 | 장방형 |  | 남-북 | 2.91:1 | 140 | 48 | 26 |  |
| 42 | 2구역 | 3호 | 장방형 |  | 남-북 | 3.55:1 | 167 | 47 | 30 |  |
| 43 | 2구역 | 4호 | 장방형 |  | 남-북 | 1.7:1 | 92 | 54 | 23 |  |
| 44 | 2구역 | 5호 | 장방형 |  | 남-북 | 2.73:1 | 115 | 42 | 9 |  |
| 45 | 2구역 | 6호 | 장방형 |  | 남-북 | 1.57:1 | 155 | 77 | 49 |  |
| 46 | 2구역 | 7호 | 장방형 |  | 남-북 | 2.35:1 | 40 | 17 | 13 |  |
| 47 | 2구역 | 8호 | 타원형 |  | 남-북 | 2:1 | 44 | 22 | 17 |  |
| 48 | 2구역 | 9호 | 타원형 |  | 남-북 | 2.04:1 | 45 | 22 | 20 |  |
| 49 | 2구역 | 10호 | 장방형 |  | 남-북 | 3.16:1 | 57 | 18 | 16 |  |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백자발(1구역-6호 토광묘)이나 청동숟가락(1구역-11호 토광묘)의 경우 는, 별도의 유물과 공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출토되었다. 철제가위와 청동숟가락이 공반된 1구역 30호 토광묘의 경우는 청동숟가락편의 일부만이 확인되어 철제가위 1점으로만 시기를 추정해야 하 는데, 1구역 2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동전 2점은 주조시기가 확실한 만큼 상한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 유일한 유물로 손꼽힌다.

<표 21>‘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조선시대 토광묘 내 유물 출토 현황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호수 | 유물 | | | 비고(수치: 수량-점) |
| 토도류 | 옥석류 | 금속류 |
| 1 | 1구역-6호 | 1 | - | - | 백자발(1) |
| 2 | 1구역-11호 | - | - | 1 | 청동숟가락편(1) |
| 3 | 1구역-24호 | - | 5 | 2 | 구슬(5), 동전(2) |
| 4 | 1구역-30호 | - | - | 2 | 청동숟가락편(1), 철제가위(1) |

청동숟가락의 부장양상은 단독으로 부장된 1구역 11호 토광묘와 철제가위와 공반되어 매납된 1 구역 30호 토광묘로 구분할 수 있다〈표 22〉. 청동숟가락128)은 술부와 병부로 구분되고, 병부의 끝 은 병단부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청동숟가락은 술부의 형태에 따라 타원형과 유엽형으로 구분 한다. 병단부는 형태에 따라 제형, 방형, 반원형, 연미형, 연봉형, 약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 려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던 연미형은 조선시대로 가면서 매우 간략한 형태로 바뀌고, 연봉형과 약시 형의 병단부는 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다.

다만 1구역 1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71)은 시부는 유엽형이고, 측면상 심한 곡률이 있으며, 시부 일부와 병단부 전체가 결실되었다. 1구역 30호 토광묘의 청동숟가락(79)은 잔존상태 가 불량한데다, 시부와 병부가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다.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들은 형태 에 따라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나,‘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의 토광묘에서 확인되 는 청동숟가락은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그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결실되어 추정조차 어려움이

1.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8,『한국고고학전문용어집』,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1, 진인진. p.540.

464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따른다. 다만 1구역 30호 토광묘에서 청동숟가락과 공반된 철제가위는 1점 밖에 확인되지 않지만, 대략의 시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표 22>‘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조선시대 토광묘 내 출토 청동숟가락과 철제가위

|  |  |
| --- | --- |
| 1구역-  11호 토광묘 | 71 |
| 1구역-  30호 토광묘 | 79 80 |

가위129)는 기본적으로 인부와 병부로 구성되어 있고, 기부가 추가되기도 한다. 가위는 하나의 판을 기부를 중심으로 구부려 만든 일체형(8자형)과 병부와 인부로 구성된 두 개의 판을 고정못으로 결합 시킨 조립형(X자형 또는 교차형)이 있다. 1구역 30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제가위(80)는 거의 완형 에 가깝고, 인부 단면은 납작한 반원형이며, 손잡이 단면은 방형이다. 손잡이 끝부분은 바깥으로 말 아서 둥글게 마무리했다〈표 22〉. 출토된 가위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판단되는데, 자료 에 있어 질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X’자형 철제가위의 손잡이 모양, 날과 손잡이의 단면형태로 보아, X자형-Ⅲ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철제가위의 X자형-Ⅲ식 분류는‘안동 옥동 고묘군5 유적’의‘안동 옥동 고묘군5 출토 철제가위 형식분류’130)〈표 23-②〉를 참조하였는데, 이 형식분류 기준은 기존의 철제가위의 분류 양식인 일체형과 조립형(①)131)에서, 조립형을 교차형으로 보고 그 형식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②). 위 의 분류인 ①에 따르면 [8]자형 1식은 삼국시대, [8]자형 2식은 고려전기까지, [X]자형은 13세기 후 반경부터제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132)‘X’자형을 보다 세분화한 ②에 따르면, X자형-Ⅰ식이 고 려전기 양식에서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확인되는 X자형-Ⅱ식과 X자형-Ⅲ식의 과도기적 형태 또 는 X자형 발생초기 양식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8,『한국고고학전문용어집』,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1, 진인진. p.533. 에서는 가위에 대하여“…일제형과 조립형은‘X’자형과‘8’자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보는 시각에 따라 일치하지 않 아 일체형과 조립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 일체형이 조립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13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로 설명하고 있다.
2.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안동 옥동 고묘군5-안동 이마트~강변대로간 대로3-5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동 국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15책.‘Ⅴ.고찰’-3.유물-3)철기류(pp.227~228) 참조.
3. 정의도, 2014,『한국고대 숟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p.692, pp.733~739 참조. 132) 정의도, 2014, 앞의 책, pp.733~739 참조.

동국문화재연구원 465

<표 23> 철제가위의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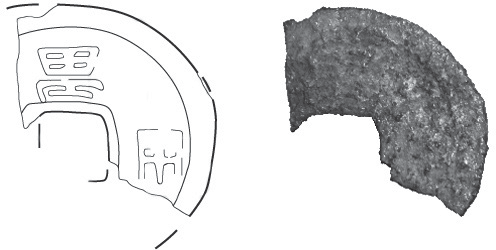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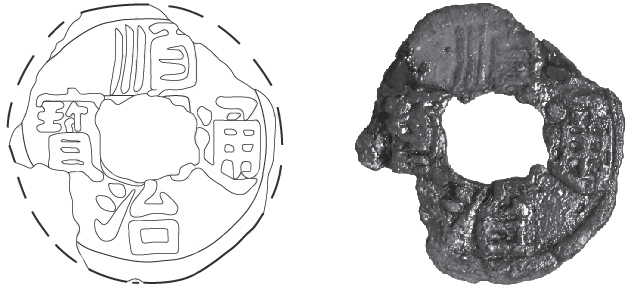
|  |  |
| --- | --- |
| ① | 정의도, 2014, 『한국고대 숟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p.692, 삽도 2 인용. |
| ② |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 『안동 옥동 고묘군5』, p.227, 표 11 인용. |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1구역 30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제가위는〈표 23〉에 따라, ①·② 모 두에서‘X’자형에 포함되며,‘X’자형을 보다 세분화한 ②에 따르면‘X자형-Ⅲ식’에 해당한다.

출토 유물 가운데 동전의 경우는 비교적 유구의 상한시기를 짐작케 하는 것으로,‘함평 사거리 명 암유적’토광묘의 조성시기를 대략이나마 추정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비 록 동전의 주조시기와 매장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매장유적의 특성상 모든 유물에 해당되 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466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에서 출토된 동전은 1구역의 24호 토광묘에서 2점이 함께 출토되었다<표 24〉. 순치통보(順治通寶) 1점과 만력통보(萬曆通寶) 1점으로, 부식이 심한 상태이다. 순치통보(72)133) 는 부식이 심하지만 네 글자가 모두 남아 있고, 만력통보(73)134)는 부식이 심한데다 대부분 결실되 어 두 자만이 희미하게 확인되는데‘만(萬)’자의 형태만 추정이 가능하였다.

<표 24>‘함평 사거리 명암유적’1구역 24호 토광묘 내 출토 동전

|  |  |
| --- | --- |
| 순치통보 | 만력통보 |
| 72 | 73 |

순치통보는 청나라 순치제(順治帝)의 재위기간에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순치제의 재위기간인 1644년부터는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력통보는 명나라 만력 제(萬曆帝)의 재위기간에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만력제 재위기간인 1573년부 터는 만력통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력통보와 순치통보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두 동전 사이에는 70년 가량의 시기 차이가 있다. 만력통보와 순치통보가 1구역 24호 토광 묘에서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구역 24호 토광묘는 1644년 이후에 조성되었고, 매장 당시에 주조시기가 다른 동전을 함께 매장한 것이다. 만력통보는 이전시기에 주조되었으나, 후대에 순치통 보와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가운데 조선시대 토광묘는 동반된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동전 등의 출토 유물을 분석한 결과, 1644년 이후인 17세기 중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

‘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은 가장 이른 시기인 초기철기시대 목관묘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가장 늦은 시기인 조선시대 토광묘까지 여러 시기의 여러 묘제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독 구릉사면부라는 동일 묘역안에서 위치상, 시기상의 우외와 관계없이 대체로 능선을 따라서, 등 고선과 직교되게 조성되었음도 보여준다. 이로 볼 때‘함평 사거리 명암유적’은 오랜 시기 동안 꾸 준하게 함평 지역민이 이용하였던 공동묘역 중 한 곳이 아니었을지 조심스럽게 판단해본다. (김성영)

1. 『두산백과』참조.‘순치(順治)’는 청나라 제3대 황제(1638-1661, 재위 1644-1661)의 연호(年號)로, 묘호(廟號)는 세조(世祖), 휘는 복림(福臨), 시호는 장황제(章皇帝)이다. 연호를 순치로 정하였으므로‘순치제(順治帝)’라 한다. 숭덕(崇德) 8년(1643) 황위를 이어받았고, 다음 해에 연호를 순치로 바꾸었다가 9월에 입관(入關) 하여 북경(北京)으로 들어와 10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2. 『두산백과』참조. 만력(萬曆)’은 명나라의 제13대 황제(1563-1620, 재위 1572-1620)의 연호(年號)로, 묘호 (廟號)는 신종(神宗), 휘는 익균(翊鈞), 시호는 현황제(顯皇帝)이다. 융경 6년(1572)에 아버지 목종(穆宗) 융경 제(隆慶帝)가 죽자, 그해 7월 19일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새 임금이 즉위한 이듬해부터연호를 사용하는 유 년칭원법(踰年稱元法)에 따라 1573년부터 만력(萬曆)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명나라의 역대 황제들 중 가 장 오래 재위한 황제이다.

동국문화재연구원 467